

##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 측정도구 개발

박 희 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로

김 광 응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 구성을 위해 30명의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의욕상실 경험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첨가하였다. 이를 통해 총 7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총 191명의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70개의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문항양호도 작업을 통해 29문항을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3문항이 제거되어 총 3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5개의 요인구조를 나타내었다. 하위변인은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그리고 '신체화 증상'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변인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와 반분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 및 하위 변인 간 상관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개발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가 타당하며, 국내의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아동상담,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최근 아동상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증대하면서 아동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과 역할 등도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아동상담 현장에서 아동상담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전문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은 아동상담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이는 곧바로 아동상담 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상담은 성인상담과 달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더 많이 요구되며, 부모나 주양육자와의 잦은 접촉 및 상담 등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된 능력들이 아동상담자에게 요구되어진다.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간으로서의 상담자 자신이며, 가장 강력한 기법은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는 상담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상담자

의 능력이다. 상담자가 단순히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상담의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상담자는 전문가적인 자질과 함께 인간적인 자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상담자는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확고한 자기중심을 잡고, 자신의 힘을 느낌으로써,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인간적 자질을 통합하여 상담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인간적 자질을 갖춘 상담자는 자신의 생활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Corey & Corey, 1989).

Norcross(2000)는 상담자를 ‘종종 녹초로 만들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 직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신건강실무자들에게 강요되는 부정적 대가를 밝혀내는 연구들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있어 중간정도의 우울증, 가벼운 불안, 정서적 피로와 불안한 관계 같은 증상을 지적하였다. 만일 효과적인 자기 보호 전략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상담과 관련된 직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상담의 긴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사실상 모든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비슷한 종류의 압박감을 경험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상담자는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큰 압력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복지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추천에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Corey & Corey, 1989). 이러한 지속된 스트레스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상담자가 느끼는 의욕상실(burnout)일 것이다. 상담자의 의욕상실은 상담이라는 직

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의욕상실을 경험하지만 상담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특히 상처받기 쉽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의욕상실은 심각하다.

의욕상실(burnout)은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과정(Vachon, 1980)으로서, 이것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 남을 돕는 직업(helping profession)에서 시작되었는데, Freudenberger(1974)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신체적 탈진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과도한 요구에 의해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만드는데 실패한, 지치게 한, 고갈되어 버린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성과나 보상도 없이 인간적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를 의욕상실이라고 정의하였다.

Maslach(1982)에 따르면, 의욕상실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직, 특히 의료나 교육, 사회사업가, 상담자와 같은 인간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Maslach(1982)는 의욕상실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첫 번째 요소로는 정서적 소모를 들 수 있다. 정서적 소모는 싫증남, 에너지의 상실, 피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느낌, 관심, 확신, 흥미, 기백의 상실 등을 뜻하기도 한다. 두 번째 요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비인격화 경향,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 이상주의의 상실, 신경과민 등을 말한다. 세 번째 요소는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낮은 사기, 이탈,

생산성의 감소, 무능력한 대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의욕상실(burnout)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장기간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력 결과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로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일, 인생,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무기력과 절망감이 특징이다.

Maslach와 Leiter(1997)는 의욕상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의 혼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가치, 존엄성, 정신과 의지의 침식, 즉 인간영혼의 침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욕상실에 이르게 하는 요인은 과중한 업무, 통제력의 부족, 불충분한 보상, 지역사회 붕괴, 불공정, 중요한 가치혼란 등이다. 의욕상실은 결과적으로 개인적 우울감, 도덕성 상실, 고립감, 생산성 감소, 대처능력 감소를 가져온다.

의욕상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은 자신과 그들이 속한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데 첫째, 스트레스와 의욕상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과 복지의 수준을 나타내 준다. 즉 의욕상실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경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로(Carrol & White, 1981; Cherniss, 1980; Pines & Maslash, 1978), 근심걱정과 우울증(Himle et al., 1987), 신체적 장애(Golembiewski, et al., 1986), 불면증(Carrol & White, 1981), 약물에 대한 높은 의존(Carrol & White, 1981; Maslash & Pines, 1977), 식욕부진 또는 과식(Carrol & White, 1981; Tanner, 1983) 그리고 무기력 증세(Pines & Maslash, 1978)를 겪는다

고 한다. 둘째, 스트레스와 의욕상실은 이들이 속한 조직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결국이나(Bartoli, 2002; Raquepaw & Miller, 1989), 이직(Raquepaw & Miller, 1989) 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Maslach & Leiter, 1997)에 영향을 미쳐, 결국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의욕상실은 또한 그 가족(Maslach & Jackson, 1986), 동료직원(Golembiewski, et al., 1986) 심지어 거래의 대상이나 고객(Maslach & Jackson, 1982; Pines & Maslash, 1978)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담자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상담 대상이 아동이 된다면, 상담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의욕상실로 인한 심각성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의욕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상담자는 아동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집합체로 보게 되어 비인격화하게 되고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자신과 아동과 상담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담의 의미와 상담효과를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은하, 2001).

Corey와 Corey(1989)는 의욕상실(burnout)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는 상담자가 자신이 상담을 단지 해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행동을 해도 내담자는 달라지지 않고, 더 이상 내담자에게 줄 것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며, 의욕상실은 한 인간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상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활기를 박탈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상담자라는 직업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의욕상실 현상이 잘 발생되며, 상담과정에서 또한 그에 따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 정서적 소모감과 무력감을 가져오고, 상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은 내담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상담에서 아무런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Maslach, 1982).

이러한 상담자의 의욕상실이 상담자 개인은 물론 내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작용되어 많이 보고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담분야에서 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상담자만을 대상으로는 최근 고은하(2001)의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 정도와 대처유형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상담분야에서 의욕상실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Maslach와 Jackson(1981, 1986)의해 개발된 의욕상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그대로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고은하(2001), 박성호(2002), 최혜윤(2002) 그리고 홍준호(2004) 등의 연구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1981년 Maslach과 Jackson이 의료나 교육, 사회사업가, 상담자와 같은 인간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욕상실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로서 3개의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최혜영(1994)이 번안한 하위변인의 명칭은 ‘정서적 소모’, ‘내담자의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로 각 9문항, 5문항 그리고 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서 연구된 김병섭(1990)의 MBI 척도의 구성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MBI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요인의 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요인구조를 시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 맞는 개념구성을 이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최혜윤(2002)은 많은 연구에서 MBI 질문지의 문항을 임의적으로 삭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의욕상실 척도의 타당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상담자에게 맞는 문항과 척도의 하위구조를 찾아내어 타당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상담자에게 적합한 의욕상실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상담자의 실정에 적합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아동상담자들의 의욕상실 경험에 대한 지각을 먼저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관련 문헌연구들을 참고하여 앞선 조사에서 본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문항들을 첨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항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는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밝혀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의욕상실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아동상담자의 훈련 및 교육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 1)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sup>1)</sup>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상담기관 시설 및 사설상담소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상담소(실), 소아정신과, 조기교육기관, 대학부설상담소,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아동상담자이다.

먼저 예비조사에서 면접 대상이었던 30명

의 아동상담자 특성 중 성별은 29명이 여자이고, 1명이 남자였고, 연령은 만 25-29세가 11명, 30-39세가 17명 그리고 40세 이상은 2명이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명이고 기혼이 16명이다. 학력은 학사 졸업이 1명, 석사졸업이 7명, 그리고 박사과정이 17명이었고 박사졸업이상이 5명이었다. 상담경력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인 1명, 1-3년 미만 5명, 3-5년 미만인 11명, 5-10년 미만인 7명, 10년 이상이 2명이었다. 총 상담 사례수는 1-9사례가 3명, 10-29사례가 5명, 30-99사례가 12명 그리고 100사례 이상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10명이었다. 주상담분야는 놀이치료가 22명, 일반심리상담 4명 미술치료 2명, 치료놀이와 언어치료가 각각 1명씩이었다. 또한 모든 아동상담자가 개인이나 집단 슈퍼비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본조사 대상인 191명의 아동상담자 특성 중 성별은 189명이 여자이고, 2명이 남자였고, 연령은 만 25-29세가 96명, 30-39세가 78명 그리고 40세 이상은 17명이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8명이고 기혼이 73명이다. 학력은 학사 졸업이 53명, 석사졸업이 88명, 그리고 박사과정과 수료자가 36명이었고 박사졸업이상이 13명이었다. 상담경력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인 24명, 1-3년 미만 61명, 3-5년 미만인 58명, 5-7년 미만인 28명, 7년 이상이 20명이었다. 총 상담 사례수는 5-10사례 미만인 28명, 10-29사례가 40명 30-99사례가 73명 그리고 100사례 이상 경험을 가진 상담자가 50명이었다. 주상담분야는 놀이치료가 111명, 일반 심리상담 23명, 미술치료 22명, 언어치료 14명, 음악치료 10명, 인지치료 5명, 치료놀이가 5명 그리고 행동치료도 1명 있었다.

1)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8세까지를 말하므로 18세 미만인 청소년도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전문적 경험에 있어서 177명이 개인이나 집단 슈퍼비전에 참여하고 있었고, 14명은 슈퍼비전 경험이 없었다.

##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

표 1. 본조사의 아동상담자 일반적 배경

n=191		
변인	구분	빈도(%)
성별	여	189(98.95)
	남	2( 1.05)
연령	25-29세	96(50.26)
	30-34세	60(31.41)
	35-39세	18( 9.42)
	40세 이상	17( 8.90)
결혼여부	미혼	118(61.78)
	기혼	73(38.22)
학력	학사졸업	12( 6.32)
	석사과정및수료	41(21.58)
	석사졸업	88(46.32)
	박사과정및수료	36(18.95)
	박사졸업이상	13( 6.84)
경력기간	6개월-1년미만	24(12.57)
	1-3년 미만	61(31.94)
	3-5년 미만	58(30.37)
	5-7년 미만	28(14.66)
	7년 이상	20(10.47)
총상담 사례수	5- 9사례	28(14.66)
	10-29사례	40(20.94)
	30-49사례	25(13.09)
	50-99사례	48(25.13)
	100사례 이상	50(26.18)
상담분야	놀이치료	111(58.12)
	일반언어상담	23(12.04)
	미술치료	22(11.52)
	언어치료	14( 7.33)
	음악치료	10( 5.24)
	치료놀이	5( 2.62)
	인지치료	5( 2.62)
	행동치료	1( .52)
슈퍼비전 경험	있음	177(92.67)
	없음	14( 7.33)

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상담자 의욕상실 측정도구로 사용되어진 Maslach와 Jackson(1981, 1986)에 의해 개발된 의욕상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와 Corey와 Corey(1989), Maslach와 Leiter(1997) 등의 선행 관련문헌과 본 연구의 예비조사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총 7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 아동상담 관련학과 교수 3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1인, 상담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아동상담자 8인의 자문을 구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하위 문항구성은 1-22번 문항까지는 Maslach와 Jackson(1981, 1986)의 의욕상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따랐고 그 이후의 문항은 본 연구자가 선행 관련문헌과 예비조사의 면접 자료를 근거로 추출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 1986)의 의욕상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아동상담자 191명을 대상으로 본조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7, .74, .74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측정도구의 문항구성을 위해 아동상담자 30명을 대상으로 의욕상실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심리상태, 신체와 행동변화, 대처방법 등에 대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상담자 1인당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이를 통해 수집된 문항과 선

행 관련문헌을 참고로 총 70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동상담 전공 교수 3인과 소아정신과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이를 다시 상담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아동상담자 8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해 수정하였다. 이로부터 나온 총 70문항을 210명의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2월 동안에 수행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총 196부 중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한 191부가 본 척도를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제거후의 내적합치도, 문항과 전체와의 상관,  $\chi^2$ 검증 및 Cramer's V를 통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준거타당도와 요인타당도를 위해서는 피어선의 단순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분신뢰도와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AS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문항 양호도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다(표 2 참조). 총 7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고 각 과정에서 해당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제거하였고 아래에 그 수를 제시하였다. 단 앞서 제거된 문항은 다음 과정에서 제거된 문항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상대도수분포를 구하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문항을 찾아 4문항을 제거하였고(표 2에서 생략하였음), 평균이 4점 이상이거나 2점 이하인 문항으로 16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그 다음 과정으로 각 문항과 전체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낮은 상관을 보인(유의 수준 5%이하에 못 미치는 문항) 2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전체 내적 합치도에 비해 문항 제거 후 내적 합치도가 증가하는 7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분포를 토대로 전체 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 두 집단 간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chi^2$ 검증(유의 수준 5%이하에 못 미치는 문항)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Cramer's V계수(본 계수를 통한 변별도의 일반적인 수용수준 .25이상임을 고려함)도 산출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앞서 제외된 문항 이외에 추가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따라서 총 70개의 문항에서 문항 변별과정을 통해 제거된 29개의 문항을 제외한 41문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 타당도

위에서 문항 양호도를 통해 변별된 41개의

표 2.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의 문항 양호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전채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 (.9493)	$\chi^2$	변별도 (V계수)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전채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 (.9493)	$\chi^2$	변별도 (V계수)
1	3.06	.84	.53***	.9484	36.90***	.56	36	2.09	.78	.64***	.9479	58.29***	.70
2	3.25	.90	.39***	.9490	19.64***	.41	37	2.56	.78..	-.56***	.9483	45.98***	.62
3	2.51	.87	.61***	.9480	54.08***	.67	38	2.25	.64	.51***	.9484	40.06***	.58
4	3.52	.66	-.24***	.9514	24.60***	.46	39	2.31	.88	.57***	.9483	53.85***	.68
5	1.90	.76	.44***	.9488	30.46***	.51	40	1.84	.81	.62***	.9480	42.87***	.60
6	2.87	.94	.43***	.9488	28.93***	.50	41	2.14	.87	.75***	.9475	68.37***	.76
7	3.24	.64	-.25*	.9515	19.90***	.41	42	2.02	.85	.77***	.9474	72.49***	.78
8	2.51	.86	.56***	.9483	46.05***	.62	43	1.68	.70	.71***	.9476	67.62***	.76
9	3.68	.75	-.16*	.9511	30.34***	.51	44	1.88	.94	.74***	.9475	75.64***	.80
10	2.00	.86	.52***	.9484	30.64***	.51	45	1.67	.78	.64***	.9479	42.34***	.60
11	1.98	.87	.40***	.9489	23.80***	.50	46	1.59	.73	.67***	.9479	61.36***	.72
12	3.09	.97	.05	.9503	8.73	.27	47	2.76	.99	.57***	.9483	39.42***	.58
13	2.31	.86	.50***	.9485	31.44***	.52	48	2.07	.95	.59***	.9482	51.21***	.66
14	3.17	.81	.01	.9505	1.57	.12	49	1.93	.84	.67***	.9478	60.48***	.72
15	1.78	.74	.43***	.9488	26.54***	.47	50	1.90	.85	.63***	.9480	61.56***	.72
16	2.30	.91	.52***	.9484	34.04***	.54	51	1.65	.87	.61***	.9480	52.67***	.67
17	3.58	.75	-.23**	.9514	17.27**	.38	52	3.33	.99	.23**	.9497	11.54*	.31
18	4.14	.74	-.14	.9511	6.77	.24	53	2.80	.73	.52***	.9485	42.20***	.60
19	3.74	.75	-.17*	.9511	7.82*	.26	54	2.54	.99	.69***	.9478	57.47***	.69
20	2.73	.83	.36***	.9491	23.24***	.44	55	2.12	.82	.64***	.9479	49.09***	.65
21	3.16	.71	-.24***	.9514	10.97*	.30	56	2.77	1.01	.61***	.9481	55.51***	.69
22	2.03	.72	.31***	.9493	13.44**	.34	57	1.76	.76	.67***	.9478	55.01***	.68
23	2.19	.69	.44***	.9487	32.91***	.53	58	2.01	.88	.57***	.9482	61.61***	.72
24	2.50	.77	.39***	.9489	17.24***	.38	59	1.87	.93	.62***	.9480	66.51***	.75
25	2.18	.75	.64***	.9479	64.86***	.74	60	2.03	.90	.57***	.9483	52.67***	.67
26	2.23	.75	.59***	.9482	49.90***	.65	61	2.09	.87	.70***	.9477	70.78***	.77
27	2.13	.75	.57***	.9482	42.68***	.60	62	2.08	.96	.59***	.9482	56.69***	.69
28	2.30	1.01	.62***	.9481	55.74***	.69	63	2.55	.84	.52***	.9485	47.70***	.64
29	1.92	.80	.58***	.9482	39.24***	.58	64	3.65	.85	.32***	.9492	16.63**	.38
30	2.01	.78	.62***	.9480	48.21***	.64	65	1.85	.70	.53***	.9484	30.01***	.50
31	1.78	.77	.66***	.9478	49.22***	.65	66	1.88	.86	.59***	.9482	48.55***	.64
32	2.01	.86	.68***	.9478	46.87***	.63	67	1.97	.80	.55***	.9483	44.53***	.61
33	2.37	.94	.60***	.9481	41.59***	.59	68	3.02	.94	.40***	.9490	30.53***	.51
34	2.05	.96	.63***	.9480	57.15***	.70	69	2.15	.95	.65***	.9479	44.08***	.61
35	3.20	1.03	.50***	.9486	32.12***	.52	70	1.92	.89	.65***	.9479	89.98***	.87

\*.01<P<.05, \*\*.001<P<.01, \*\*\*P<.001

문항에 대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 명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김병섭, 1990; 최혜영, 1994; Corey & Corey, 1989; Golembiewski, et al., 1986; Maslach & Jackson, 1981, 1986;

Maslach & Leiter, 1997)를 참고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하위요인과 전체와의 상관, 그리고 기존의 의욕상실 척도인 MBI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치를 보이는 요인을 기준



표 3.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변인 및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sup>2</sup>
<b>요인1: 정서적 소모</b>						
1.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767	.197	.072	.033	.216	.68
2.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716	-.004	.291	.252	.057	.60
3.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635	.310	.090	.068	.279	.62
8.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683	.177	.294	.252	.087	.65
20.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368	.368	.110	.086	-.015	.26
25. 상담을 하고 나면 우울한 느낌이 든다	.305	.166	.140	.180	.190	.56
26. 상담을 하고 나면 머리 속이 텅 빈 느낌이다	.347	.327	.095	.355	.207	.48
33. 상담만 떠올리면 늘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하다	.683	.504	.369	.369	.025	.56
34. 상담만 떠올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461	.126	.141	.169	.363	.54
35.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490	.220	.441	.406	-.013	.48
61.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360	.327	.188	.182	.481	.60
62. 휴직하고 싶다	.414	.266	.456	.060	.352	.49
<b>요인2: 직업적 회의</b>						
6. 사람들과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299	.337	.041	.237	.057	.27
13. 나는 이 일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336	.551	.331	-.145	.31	.44
16.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269	.618	.206	.150	.033	.44
22. 내담자들이 자기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070	.599	-.132	.076	.292	.46
23. 나는 상담가로서 능력과 자질이 없다	.140	.654	.010	-.085	.241	.44
24. 나는 항상 이정도 밖에 못하나 하고 생각한다	.276	.655	.066	.016	-.098	.52
27. 앞으로 상담을 계속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060	.711	.093	.060	.232	.60
28. 이 일이 내 천직일까 의심스럽다	.188	.764	.045	.026	.182	.67
37. 상담한 내용에 대해 실망감이 큰 적이 많다	.213	.676	.260	.141	.163	.52
38. 내담아동과 그 부모에게 죄책감이 자주 든다	.046	.580	.154	.229	.128	.36
53. 상담내용에 확신이 들지 않아 상담케이스를 점검하는 일이 잦다	.194	.506	.077	.082	.337	.50
60. 나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269	.364	-.022	-.018	.460	.46
69.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023	.505	.153	.290	.401	.47
<b>요인3: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b>						
36. 상담시간이 다가오면 두렵다	.027	.294	.341	.353	.250	.52
41. 상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다	.127	.328	.388	.373	.339	.61
47. 어려운 내담자(힘든 내담자)는 다른 상담원에게 refer하고 싶다	.157	.261	.449	.260	.134	.40
62. 휴직하고 싶다	.414	.266	.456	.060	.352	.48
63. 내담자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많다	.060	.147	.669	.158	.205	.50
<b>요인4: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b>						
10. 상담을 선택한 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332	.041	.076	.555	.500	.49
32. 상담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거나 공격적이 된다	-.046	.316	.299	.419	.284	.59
39. 내 일을 못하고 나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138	.154	.039	.555	.313	.44
64.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좋게 느껴진다	.051	.019	.018	.658	-.201	.50
68.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10	.175	.022	.693	-.046	.50

하위변인 및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sup>2</sup>
<b>요인5: 신체화 증상</b>						
48. 상담을 하고부터 몸 아픈 일이 잦다	.143	.131	.189	.325	<b>.390</b>	.58
54. 이 일을 하고부터 잠을 많이 자거나 자고 싶다	.030	.087	.282	.499	<b>.494</b>	.58
55. 상담을 하고부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275	.015	.196	.267	<b>.583</b>	.53
56. 상담을 하고나면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친다	.348	.109	.233	.139	<b>.615</b>	.54
58. 이 일을 하고부터 심호흡을 많이 한다	.335	.106	.002	.333	<b>.518</b>	.50
<b>고유값</b>	20.60	3.63	3.28	2.51	1.96	
<b>변량(%)</b>	33.77	5.97	5.39	4.12	3.23	
<b>누적변량(%)</b>	33.77	39.74	45.13	49.25	52.48	

으로 전체변량의 52.48%를 설명하는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 부하량이 해당요인에 .30이상을 나타내고 같은 요인에 묶인 다른 문항들과 유사한 의미를 보이는 문항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총 41개의 문항 중 2개를 제외한 39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요인1은 고유치가 20.60이고 전체변량의 33.7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 2, 3, 8, 20, 25, 26, 33, 34, 35, 61, 62번 문항이 소속되어 12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들 문항은 상담자의 일에 싫증남, 에너지의 상실, 피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느낌, 관심, 확신, 흥미, 기백의 상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MBI의 척도에서와 같이 최혜영(1994)이 번안한 ‘정서적 소모’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고유치가 3.63이고 전체변량의 5.9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6, 13, 16, 22, 23, 24, 27, 28, 37, 38, 53, 60, 69번 문항이 소속되어 13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들 문항은 상담자의 직업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담이라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 상실, 낮은 사기,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와 상담자라는 직업선택에 대한 후회와 갈등을 뜻한다. 요인2는 ‘직업적 회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고유치가 3.28이고 전체변량의 5.39%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36, 41, 47, 62, 63번 문항이 포함되어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다. 이들 문항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피와 거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4는 고유치가 2.51이고 전체변량의 4.12%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0, 32, 39, 64, 68번 문항이 소속되어 5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들 문항은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이 그 가족이나 동료집단 그밖에 다른 대인관계 등으로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5는 고유치가 1.96이고 전체변량의 3.2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48, 54, 55, 56, 58번 문항이 포함되어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들 문항은 아동상담자가 의욕상실을 경험할 때 보이는 육체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화 증상’이라고 명명하였다. 30번과 42번 문항은 위의 어느 요인에도 소속되지 않아 제외시켰다. 또한 62번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요인1과 요인3에 각각 .414와 .456의 값을 나타내어 요인1과 요인3에 중복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요인에서 모두 사용하기에 의미가 모호하여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표 4. 전체와 하위변인 간의 상관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전체	.88***	.83***	.87***	.77***	.83***

\*.01<P<.05, \*\*.001<P<.01, \*\*\*P<.001

### 전체 및 하위변인 간의 상관

요인분석에서 나온 문항 구성을 토대로 위의 표 4에서와 같이 각 하위변인과 전체 척도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총점과 하위 변인 간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이를 통해 본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존 척도와의 상관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상담자의 의욕상실 측정도구로 사용되어진 Maslach와 Jackson(1981, 1986)에 의해 개발되어 최혜영(1994)이 번안한 의욕상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와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5와 같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 요인4와 요인5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위변인과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입증하였다.

### 신뢰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의 전체 및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구하였고, 전체 척도에 대해서는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의 값은 .95이고, 하위요인들은

표 5. MBI 척도와의 상관

변인	정서적 소모	내담자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요인1	.86***	.40***	.27***
요인2	.67***	.56***	.50***
요인3	.55***	.41***	.34***
요인4	.45***	.44***	.10
요인5	.55***	.42***	.11

\*.01<P<.05, \*\*.001<P<.01, \*\*\*P<.001

표 6. 전체 및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s α와 반분신뢰도(Spearman-Brown의 공식이용)

변인	전체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ronbach’s α	.95	.87	.87	.75	.72	.84
반분신뢰도	전후법	기우법		단순무작위법		
	.80	.90		.86		

.72~.8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반분신뢰도 계수는 문항의 선별 방식에 따라 전후법과 기우법 그리고 단순무작위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전후법 .80, 기우법 .90, 단순무작위법 .86으로 나타나 문항의 선별방식에 상관없이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었다.

### 척도의 기술통계량 및 문항구성 확인

위에서 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 그리고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의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변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의 표 7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문항구성 및 역채점 문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의욕상실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국내의 상담분야에서 이루어진 의욕상실 연구에서 기존의 상담자 의욕상실 척도로 사용된 Maslach와 Jackson(1981, 1986)에 의해 개발된 의욕상

실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가 우리나라의 상담자의 실정에 적합한 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아동상담자만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실제 그들이 아동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욕상실에 대한 심리상태 및 신체행동 변화를 그대로 척도화하고자 하였다. 즉 척도의 제작에 있어 초기 과정부터 아동상담자의 실제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그 대상에 적합하고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현실에도 부합하는 의욕상실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총 7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분석, 문항 제거시의 내적 합치도, 카이검증, 문항변별도 등을 산출한 결과 41개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1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요인과 총점과의 상관 그리고 기존 MBI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치를 보이는

표 7.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의 기술통계량 및 문항구성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문항번호	문항수	역채점
정서적 소모	2.56	.57	1, 2, 3, 8, 20, 25, 26, 33, 34, 35, 61	11	
직업적 회의	2.34	.50	6, 13, 16, 22, 23, 24, 27, 28, 37, 38, 53, 60, 69	13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2.32	.64	36, 41, 47, 63	4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2.59	.60	10, 32, 39, 64, 68	5	64, 68
신체화 증상	2.30	.72	48, 54, 55, 56, 58	5	
전 체	2.42	.51	총 38 문항	38	

요인을 기준으로 전체변량의 52.48%를 설명하는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 부하량이 해당요인에 .30이상을 나타내고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에 소속되지 않은 2개 문항과 요인 1과 요인 3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두 요인에 모두 사용하기에 의미가 모호한 1개 문항을 제외한 38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8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타당도, 준거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등을 구하였다. 5개의 요인은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그리고 ‘신체화 증상’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5개의 요인은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의 총점과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MBI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요인타당도와 준거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구한 결과 전체 척도는 .95이고, 하위요인들은 .72 ~ .8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반분신뢰도 계수는 문항의 선별 방식에 상관없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전후법 .80, 기우법 .90, 단순무작위법 .86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에 대해 MBI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I의 구성적 타당성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MBI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요인의 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요인구조를 시사한다는 것이다(김병섭, 1990). 따라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 맞는 개념구성을 이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MBI와 다른 하위구조를 나타내었다. 먼저 MBI는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척도는 5개의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위변인의 내용에 있어서도 MBI의 하위구조에 대해 최혜영(1994)이 변안한 것에 따르면, 첫 번째 요소로 에너지 및 관심이나 흥미 등의 상실, 정신적 피로 등을 뜻하는 ‘정서적 소모’와 내담자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 신경과민 등을 말하는 두 번째 요소인 ‘내담자의 비인격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사기, 이탈, 생산성의 감소, 무능력한 대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서는 MBI의 두 번째 요소인 ‘내담자의 비인격화’가 하위구조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병섭(1990)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안면이나 체면이 강조되는 유교문화권에서 ‘내담자의 비인격화’가 존재하는데 대해 부정적 논의를 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하위변인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내담자를 비인격화하는 것보다 좀 더 간접적이고 순화된 의욕상실의 표현인 상담에 대한 회피나 거부, 두려움 등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척도에서는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있어서도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되는 것 이외에도 상담에 대한 자신감 상실, 상담 자라는 직업 선택에 대한 회의 및 후회감 등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직업적 회의'라고 명명하였다. 이외에도 의욕상실이 아동상담자의 가족이나 동료 그밖에 다른 대상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Maslash & Jackson, 1982, 1986; Golembiewski, et. al., 1986)을 선행 연구와 아동상담자와의 면접 자료를 통해 발견하고 이를 본 척도에서는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밖에 의욕상실을 경험 시 나타나는 신체적 장애들을 모아서 '신체화 증상'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과 '신체화 증상'은 상담자의 의욕상실을 측정하는데 있어 MBI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변인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측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척도와 MBI간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하위변인도 있는데 MBI의 '정서적 소모'에 있어 본 척도에서 발견된 요인 1에 해당되는 문항과 그 내용들이 공통된 의미를 지니어 본 척도에서도 MBI의 명칭을 따라 '정서적 소모'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상담자의 실정에 적합한 의욕상실에 대한 문항과 척도의 하위구조를 찾아내어 타당화함으로써 아동상담자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욕상실 정도를 이해하고, 의욕상실의 다양한 원인을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아동상담자의 스트레스 및 의욕상실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을 일으키

는 다양한 원인을 밝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의욕상실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아동상담자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아동상담자의 훈련 및 교육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아동상담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은하 (2001).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주 (2004). 개인특성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교사들의 심리적 탈진을 중심으로. 영남지역발전연구, 제33집, 193~214.
- 김광웅, 박인전, 방은령 공역 (2004). 아동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병섭 (1990). 심리적 탈진감: 척도와 구성적 타당도.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3호, 1455~1473.
- 김정휘 (199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신체적 건강증상 또는 탈진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2).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은령, 최명선 (2004).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01-121.
- 윤정혜 (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복희 (2004). 아동생활시설 근무자의 탈진(Burnout)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2). 빈곤지역 공부방 교사의 업무환경에 따른 소진 현상(burn-out) 업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 (1998). 아동상담의 과제와 전망. 숙명여대 가정대학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
- 이은경, 이지연 공역 (2004). *좋은 상담자 되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은혜, 유가효, 최경숙, 정옥분, 우남희, 박영애, 최영희, 이영, 정문자, 윤종희, 이소희, 이옥, 이재연, 김명순, 유미숙, 김광웅, 이순형 (2004). *한국아동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 서울: 학지사.
- 최지영 (2003). 가출 청소년쉼터 실무자들의 소진(Burnout)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영 (1994). 사회사업가의 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복지관과 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윤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경 (1982). 임상간호원의 이직반응에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준호 (2004). 상담자의 자아강도와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소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ker, G. M. (1999). The impact of clients' mental illness on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Heath & Social Work*, 24(2), 112-119.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A process and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71-476.
- Bartoli, P. V. (2002). *Burnout and job performance among education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DPD, Walden Univ.
- Carroll, J., & White, W. (1981). *Understanding Burnout: Integratio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an Ecological Framework*, *Proceeding of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Burnout*. Philadelphia, PA.
- Cherniss, C. (1980). *Staff burnout :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Beverley Hills: Sage Publications.
- Corey, M. S. & Corey, G. (1989).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
- Dormann, C. & Zapf, D. (2004). Customer - related social stressors an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9(1), 61-82.
- Dusek, D. E. (1990). *Controlling stress tension: A holistic approach*.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1).
- Freudenberger, H. J. (1975). The staff burnout syndrome in alternative institutions *Psychotherapy*, Vol. 12, 73-82.
- Girdano, D. A. & Everly, G. S. (1970). *Controlling stress tension: A holistic approach*.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Golembiewski, R. T. & Munzenrider, R., & Steven, J. G. (1986). *Stress in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 Gugliemi, R. S. & Tatrow. K. (1998). Occupational stress, burnout, and health in teachers: A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1), 61-99.
- Himle, D. P., Jayaratne, S. D. & Chess, W. A. (1987). Gender difference in work stress among clinical social worker. *Journal of Social Research*, 41-56.
- Maslach, C. (1976). Burnout. *Human Behavior*, 5(9).
- Maslach, C. (1978). The client role in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4(4).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San Francisco: Jossey-Bass.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1986).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Maslach, C. & Pine, A. (1977). The burnout syndrome in the day care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6(2), 100-101.
- McCarthy, W. C. & Frieze, I. H. (1999). Negative aspect of therapy: Client perception of therapist's social influence, burnout, and quality of care. *Journal of social issues*, 55(1), 33-50.
- Norcross, J. C. (2000). Psychotherapist self-care: Practitioner-tested, research-informed strategi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6), 710-713.
- Pine, A. & Malsach, C. (1978). Characteristics of staff burnout in mental health settings.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29, 223-237.
- Posing, M. & Kickul, J. (2003). Extending our understanding of burnout: Test of an integrated model in nonservice Occupa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8(1), 3-18.
- Raquepaw, J. M., & Miller, R. S. (1989). Psychotherapist burnout: A componential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0, 32-36.
- Tanner, A. (1983). Middle management stress: Recognizing and treating burnout victims. *Human Facilities Management, January*, 12-32.
- Um, M. Y. & Harrison, D. F. (1998). Role stressors, burnout, mediators, and job satisfaction: A stress-strain-outcome model and an empirical test. *Social work research*, 22(2), 100-115.
- Vachon, M. L. S. (1980). Care for the care givers. *The Canadian Nurse*, 28.
- Zunz, S. J. (1998). Resiliency and burnout : Protective factors for human service manager.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2(3), 39-54.
- 

1차 원고 접수 : 2005. 4.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5. 16

최종 게재 결정 : 2005. 5. 17



##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Burnout about Child Counselor

Hui Hyun Park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wang Woong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 instrument for burnout about child counselor an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We interviewed 30 child counselors and referred to the antecedent studies to develop the instrument which was composed of 70 questions. The survey consisting of 70 questions was performed for 191 child counselors. Thirty-two questions were excluded by the result of contents validation and factor analysis. Remaining 38 questions were categorized into 5 sub-variables. They were named as emotional exhaustions, doubt about job, Negative attitude to counseling, negative personal relationship, and Symptoms of somatization, respectively. The significance level(Cronbach's  $\alpha$  & split-half reliability) of sub-variables and total score was high. The correlation between total score and sub-values was significa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strument developed was valid and provided a basis for further studies in burnout about child counselor.

*Keywords: Child counseling, Child Counselor, Burnout*

## 부 록

###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척도(수정 후 문항)

1.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2.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3.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4.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5.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6. 상담을 하고 나면 우울한 느낌이 든다
7. 상담을 하고 나면 머리 속이 텅 빈 느낌이다
8. 상담만 떠올리면 늘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하다
9. 상담만 떠올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10.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11.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12. 사람들과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13. 나는 이 일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14.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15. 내담자들이 자기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16. 나는 상담가로서 능력과 자질이 없다
17. 나는 항상 이정도 밖에 못하나 하고 생각한다
18. 앞으로 상담을 계속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19. 이 일이 내 천직일까 의심스럽다
20. 상담한 내용에 대해 실망감이 큰 적이 많다
21. 내담아동과 그 부모에게 죄책감이 자주 든다
22. 상담내용에 확신이 들지 않아 상담케이스를 점검하는 일이 잦다
23. 나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24.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25. 상담시간이 다가오면 두렵다
26. 상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다
27. 어려운 내담자(힘든 내담자)는 다른 상담원에게 refer하고 싶다
28. 내담자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많다
29. 상담을 선택한 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30. 상담이 잘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거나 공격적이 된다
31. 내 일을 못하고 나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32.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좋게 느껴진다
33.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34. 상담을 하고부터 몸 아픈 일이 잦다
35. 이 일을 하고부터 잠을 많이 자거나 자고 싶다
36. 상담을 하고부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37. 상담을 하고나면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친다
38. 이 일을 하고부터 심호흡을 많이 한다